



**안경사
구인구직**

나도코리아
대구시 북구 노원로 48길 7
TEL 053.353.9992
FAX 053.351.4063

스마트폰 홈페이지 m.nado.kr
www.nadokorea.co.kr

**모바일
APP 출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나도코리아' 어플을
다운로드 하셔서 **무료로**
안경사 구인구직을
이용하세요!

03 FOCUS

업계 일각에서 국내 안경렌즈 가격이 세계 최저라고 지적하며, 안경렌즈의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04 NEWS IN NEWS

대학내일 20대연구소가 20대 여성 300명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여성들이 컬러렌즈를 매일 착용한다고 답했다.

08 INSIDE

에실로코리아의 소호순 대표가 기능렌즈의 소비자 마케팅을 더욱 확대해 국내 안경시장의 파이를 키우겠다고 밝혔다.

★★ 아이데코의 성공 경쟁력!! ★★

이젠! 바뀌어야 할 시기입니다!!

높아지는 인건비! 저마진 수익구조! 더이상은 NO~!!
빠르게 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게 바뀌어야만 합니다



주문과 재고관리를
한 번에!!

자동주문시스템 도입!!

인건비 ↓

대한민국 최초
위탁안경체인

EYE.DECO



방문상담 예약전화 : 010-6568-0661



전국 안경 · 콘택트 전문매인
(주) 안경매니저

2017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2015~17 우수프랜차이즈 3년 연속 선정!

(주)안경매니저 가맹점 모집

OPTICAL MANAGER



(주)안경매니저
가맹 안내·문의

가맹 조건

구분	가맹비	월관리비
안경매니저	500만원	30만원
씨채널안경	500만원	20만원 원부 상권 별도 책정
아이피아	1000만원	30만원

※일부 지역 제외

가맹상당 및
상권분석

총	괄	이재형	본부장	010-9670-6666
서울 · 경기북부 · 충북	서영태	팀장	010-9364-1739	
인천 · 강원 · 경기남부 · 충남	이준영	팀장	010-9424-5438	
전남 · 전북	문기영	팀장	010-7557-8208	
대전 · 경상도	노창호	팀장	010-9976-5058	

NAVER

You Tube

facebook

각 검색창에 안경매니저를 검색하시면
UX컨텐츠 영상과 이벤트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이피아



안경매니저



씨채널안경



ASAHI 1.67 / 1.74 양면배면 UV 퍼펙트 출세!



안경렌즈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 시력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
아사히 누진다초점렌즈가 거대 안경원을 신나게 만듭니다.

아이마광학 T.02.774.4477 F.02.753.9262

위기의 안경원... 해답은 안경렌즈 제값받기

내수경기 침체·고객 급감 속에 초대형 유통회사 안경계 속속 진출... 업계 일각서 안경렌즈 소비자가격 인상 주장 대두

생활용품사 이어 의류업체 안경 판매
내외외환으로 안경원 매출 계속 하락
생존 위해 안경렌즈 가격 인상 불가피

안경원의 입지가 급속히 위축될 전망이다. 국내 최대 생활용품점 D사에 이어 최근 세계적인 의류업체 U사가 공테 판매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이외에 전 세계에서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C사는 이미 선글라스와 공테를 판매하고 있다.

일선 안경사들은 안경과 전혀 상관없던 초대형 기업들이 안경계에 앞 다투어 뛰어들면서 제4 제5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계속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안경과 선글라스가 공산품이어서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대형 유통회사들이 안경계에 뛰어들수록 안경원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안경사들이 안경렌즈 가격을 제값대로 청구하고, 안경 조제로 청구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마다 안경원 매출 하락세 뚜렷

올해 상반기 안경원의 매출 상황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안경계의 도소매 관계자들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최저 매출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더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최악의 불경기 속에서 선글라스 소비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공테 고객마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안경원만 판매하라고 법에서 보장해준 콘택트렌즈를 안경사 스스로가 가격경쟁에 내몬 결과다.

그 결과 이제 안경사들이 마음 놓고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안경렌즈밖에 없게 됐다. 그런데도 전국의 많은 안경원에서 하나 남



▲ ① '안경렌즈 0원'이란 광고판이 걸려 있는 한 대형마트 내 안경원의 모습. ②~③도수테를 판매 중인 저가할인 매장과 대형 의류매장의 안경류 매대. ④시력검사를 진행 중인 미국 안경원의 검안(O.D.)의 모습.

은 안경렌즈의 가격을 파괴시키고, 심지어 어느 안경원은 안경사의 최상위 전문성이 요구되는 누진렌즈마저 '반값 할인'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서울 중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이제부터는 안경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조제 판매할 수 없는 안경렌즈, 해외직구도 안 되는 안경렌즈의 가격 파괴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앞으로 안경사는 안경렌즈의 가격을 외국같이 정상가격으로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S안경원을 운영하는 K원장도 "솔직히 말해서 선글라스, 안경테, 콘택트렌즈는 이미 안경사의 손을 떠났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이제 안경사들이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안경렌즈 가격을 정상적으로 받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안경렌즈까지 가격파괴에 나서면 국내 안경원은 정말 끝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품질의 국내 안경렌즈 가격 최저 수준

그러면 OECD 36개 회원국과 비교할 때 국내 안경렌즈 가격은 어떤가. 본지가 확인한 결과 국내 안경렌즈 가격은 세계에서 최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의 안경렌즈 가격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근본 원인은 인구에 비해 안경원이 과다 개설된 때문이다. 안경사제도가 실시된 1989년 이후 안경원이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가격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유학생들은 고국을 방문할 때 제일 먼저 안경원을 찾아서 한꺼번에 안경을 3~4쌍씩 구입하기도 했다. 이들 유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내의 안경가격, 특히 안경렌즈는 품질이 뛰어나고 가격도 매우 저렴하다고 말하고 있다.

인천시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솔직히 대기업에서 안경계에 침투할 때부터 이미 안경원의 고유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제는 안경사의 고유업무인 안경렌즈 가격을 철저히 지키고, 또 안경렌즈 가격을 인상하면 의외로 선글라스 고객이 다시 안경원을 찾아오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지금 대안협에서는 렌즈 할인 등 과당경쟁을 일삼는 안경원에 대해 보건소 등과 연계해 강력한 제재를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안경업계의 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로 안경가격의 인상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안경렌즈의 제값받기와 안경의 조제로 현실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김태용기자

Tip. 외국의 안경렌즈 가격

▶미국, 노코팅 중굴절렌즈 가격 8만원

미국 소비시장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소비자협회의 '컨슈머 리포트(Consumer Reports)'가 조사한 '미국의 안경 평균가격(2015년 기준)'은 중굴절렌즈의 평균 가격이 70.4달러(한화로 약 7만 9천원)이다. 결국 검안료와 안경테 가격을 더하면 미국의 안경 평균가격은 234.3달러(약 26만 2천원)이다. 50개 주와 1개 특별구로 구성된 미국은 각 주(州)정부마다 규제가 달라서 가격 편차가 크지만, 검안료는 대부분 약 120달러(약 13만 4천원)로써 안경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 안경렌즈 가격 점유 최고 수준

캐나다표준협회(CSA)의 지난 2016년도 기준보고에 따르면, 안경가격은 검안료를 포함해 평균 400캐나다달러(약 34만원)이다. 이 자료에는 안경렌즈의 평균 가격이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엔 '안경테는 저렴해도 상관없지만 안경렌즈는 당신의 눈을 위해 최대한 고급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권고문이 기입돼 있다. 즉 캐나다 안경가격의 상당 부분은 안경렌즈가 차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태리, 기본 안경렌즈 10만원대

근래 과당경쟁의 영향으로 검안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지만, 이태리의 광학제조업체협회(FAO)가 밝힌 '라치오주의 안경가격(2015년 기준)'에 의하면 도수테의 평균 가격은 240유로(약 31만 3천원)이다. 세목별로 검안료가 평균 20유로(약 3만 9천원), 안경테 140유로(약 18만 2천원), 안경렌즈 80유로(10만 4천원) 등이다. 또 이태리는 안경 클리너와 케이스는 별도로 청구하고 있다. 이태리의 안경렌즈 가격은 국내보다 2~3배는 더 비싼 상황이다.

▶일본, 누진렌즈 가격은 고수

일본은 1980년대 말부터 저가 안경 프랜차이즈가 등장하면서 안경 가격파괴가 시작되었다. 조프 체인의 경우는 프레임과 안경렌즈를 세트 5250엔(약 5만 3천원), 7350엔(약 7만 4천원), 9450엔(약 9만 5천원) 등 3가지 기획 가격으로 안경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누진렌즈 등 고급 렌즈는 1만5천엔(약 15만원) 이상을 지키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 저가 할인체인으로는 안경슈퍼, 안경시장, 파리미키, 진스, 안경스토어, 비전안경, 안경드래그, 조프 등이 있다.

특특특

■ "온라인서 구입한 안경 피팅 요구가 계속 늘어 나네요. 동네장사여서 거부하기도 힘들고... 피팅료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없나요?"
(서울시 도봉구의 한 안경원 원장)

■ "폭염에 휴가철이어서인지 고객 발길이 뜸 끊겼습니다. 안경원 영업, 솔직히 이제는 겁이 납니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안경사)

20대 여성 절반이 '컬러렌즈' 매일 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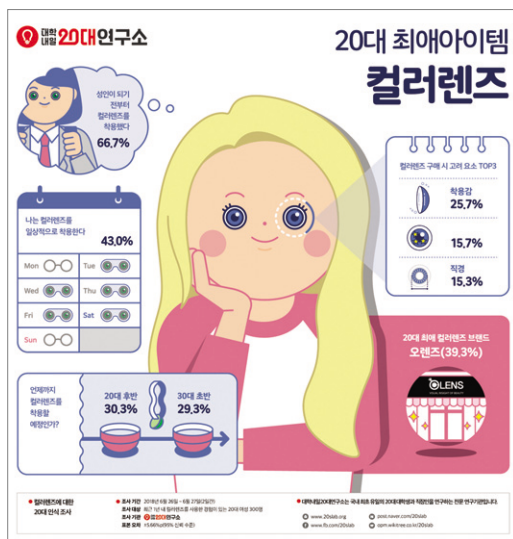
대학내일, 컬러렌즈 인식 조사 결과 약 40%가 '일상 사용한다' 답변

우리나라 20대 여성들의 대부분이 성인이 되기 이전에 컬러 콘택트렌즈를 사용했고, 절반 정도는 컬러렌즈를 일상적으로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문화정보 주간잡지 「대학내일」의 20대 연구소가 여름 시즌을 맞아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최근 1년 내 컬러렌즈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20대 여성 3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7%가 성인 이전에 컬러렌즈를 착용하기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학생 때부터 착용했다는 비율(39.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대는 컬러렌즈를 일상적으로 착용(43.0%)하고 있고, 5명 중 2명(42.3%)은 메이크업이나 코디에 따라 다른 컬러렌즈를 착용하고 있다고 답해 20대들이 화장을 하는 것처럼 컬러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48.7%)는 페스티벌과 데이트 등 특별한 날을 위해 렌즈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컬러렌즈를 구매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렌즈의 착용감(25.7%)을 가장 많이 꼽았는데 이 비율은 20대 후반일수록 높아졌고, 두 번째 구매 요소는 그래픽의 디자인(15.7%)으로 나타나 그래픽의 색상(7.0%)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컬러렌즈 구매충동이 느끼는 때를 묻는 설문에서는 지인이 사용하는 렌즈를 봤을 때 34.3%, 온라인 커뮤니티 추천 28.3%, 연예인 착용이 14.3% 순으로 조사되었고, 뷰티 유튜버의 추천은 11.3%에 불과해 눈길을 끌었다.

끝으로 20대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렌즈 브랜드를 묻는 질문에는 '오렌즈 39.3%', 2위는 '아쿠브 21.7%', 3위는 '렌즈미 16.3%'로 각각 조사되었다. 오렌즈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장이 많아 구입하기 쉽기 때문'이 35.6%, 다음은 '다양한 디자인'이 30.5%로 나타났다.

대학내일 20대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컬러렌즈는 20대 사이에서 포기할 수 없는 필수 아이템이 되었다"며 "현행법상 렌즈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20대는 디자인만큼 매장의 숫자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경원 떠난 선글라스, 백화점선 불티

백화점은 폭염특수로 전년대비 판매 증가... 안경원은 해마다 고객 감소

백화점 업계가 '폭염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염이 지속된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매출을 분석한 결과 더위를 피하기 위한 패션소품과 냉방용 가전제품의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선글라스 판매가 전년대비 14.7%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잠정 추산하고,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은 지난 22일까지 해외 유명 선글라스 브랜드를



▲ 한 백화점의 선글라스 판매 매대 모습.

중심으로 이월상품을 최대 20% 할인하는 '바캉스 선글라스 대전'을 진행해 매출 상승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백화점의 관계자는 "요즘 고객들이 폭염을 피하려고 백화점을 많이 찾고 계시다"며 "지금까지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선글라스, 모자, 양산의 수요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해 선글라스의 경우 전년대비 14.7% 가량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앞으로 롯데백화점은 여름 바캉스 시즌을 맞아 본점에서 최대 30% 할인율의 선글라스 판매전을 재고 소진 시까지 전개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안경원의 선글라스 판매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한 아이웨어 유통업체 관계자는 "여름 시즌에 거래 안경원의 선글라스 사입이 전년에 비해 50% 이상 떨어졌다"며 "사입량도 크게 줄었지만, 안경원에서 판매가 미진하다보니 제품 결제도 최악인 상황이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기도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안경사는 이제 고유업무인 조제가공료를 청구해 우리의 업권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며 "다만 단체로 움직이면 공정거래법에 담합행위로 몰릴 수 있으므로 안경원이 자신들에게 맞게 조제가공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놀이 시 콘택트 사용 주의하세요'

식약처, 여름철에 의약품 안전 사용법 권고... 콘택트렌즈의 세척과 소독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나 야외활동을 할 때 필요한 식품과 의약품 관련 안전 사용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발표했다.

지난 24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안전 사용요령은 콘택트렌즈, 보청기 등 사용 시 주의사항을 비롯해 ▶식재료 구입 및 안전보관 등 식중독 예방 요령 ▶안전 상비의약품, 벌레 물린데 바르는 약, 말미약 등 의약품 올바른 사용법 ▶자외선차단제, 제모제 등 화장품 올바른 사용법 등이다.

이번 발표에서 식약처는 콘택트렌즈는 물과 접촉할 경우 미생물에 의한 바이러스 등 각종 병원균의 감염 확률이 높아지므로 물놀이를 할 때는 착용하지 말 것과 부득이하게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경우 눈이 불편하거나 과도한 눈물 분비, 충혈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렌즈를 즉시 제거하고 안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어 콘택트렌즈는 반드시 식약처에서의



약품으로 허가한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으로 세척, 소독한 후 정해진 보관용기에 넣어 관리하고, 콘택트렌즈를 눈에 착용한 후에는 콘택트렌즈 보관용기 안에 있는 용액은 즉시 버리고 세척한 다음 건조시켜서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1577-1255

간단한 눈 검사로 치매 예측

英 컬리지런던대, 망막 신경층 얇으면 기억과 논리적 장애 위험성 높아지는 사실 확인

안경 조제를 위한 간단한 눈 검사만으로 치매 발병을 예측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컬리지런던대 연구팀이 3만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신경학지」에 따르면, 망막 뒤편 조직을 대상으로 눈 질환의 조기 증후를 찾아내는 검사가 치매 발병 위험을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구광학단층촬영(optical coherence tomography)을 사용해 망막 신경층을 측정했을 때 망막이 얇은 사람들이 기억과 논리적 장애를 가질 위험, 즉 치매가 발병할 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억력과 반응시간, 논리력을 측정한 결과 망막신경 섬유층이 얇은 사람들이 검사에서 실패하는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영국은 검안의(OD)가 검안 자격을 갖고 있지만 국내 안경사들은 의료



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 8호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 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이 같은 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수도권의 한 안경광학과 교수는 "망막 신경층을 측정하는 검사는 안경사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검사여서 안경사들이 수행할 수 없지만, 사실상 안구광학단층촬영은 간단한 장비로 가능한 검사로써 안경사가 국민 안 보건 향상을 위해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UV ZERO

Blue Light is everywhere



(주) 하이비전코리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흥덕IT밸리 3310호

Tel. 1899-7391 Fax.031.278-1892 Mail.hivisionkorea@hivision.co.kr Web.www.hivision.co.kr



●경기대명 - 경기남부 031-391.5942 ●신성유택-대전.충북남 042.535.1514 ●하이비전 - 부산.울산.경남 1600.0970/051.257.7001

행복한 안경매니저, 가맹점 쾌속 순항

부산, 전주, 익산서 연속 오픈 행렬... 가맹점 원장들 입소문 타고 가맹 계약 신바람

(주)안경매니저(대표 김재목)의 대구 복현점이 지난 1일 성공적으로 오픈하는 등 가맹 활동이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송도 캠퍼스타운역점, 전주 에코시티점, 익산 영등점에 이어 복현점이 오픈한 안경매니저는 곧이어 전북 지역에서 오픈을 앞두고 있다.

장기간 계속된 경기침체 속에서 릴레이 오픈을 이어나가는 안경매니저가 일선 안경사들에게 선택받는 이유는 안경매니저만의 차별화된 마케팅 때문이다. 바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적극적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으로 고객들의 가맹점 방문을 돕고, 가맹점의 수익을 보장하는 활발한 PB 상



▲ 안경매니저 전주 에코시티점(좌측)과 익산 영등점 모습.

품 개발과 특화된 검안 시스템 등 가맹점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안경매니저 한 관계자는 “가맹점 오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안경매니저에 대한 가

맹 원장님들의 입소문에서 비롯된 요인이 크다”며 “자사는 앞으로도 침체된 안경시장에서 원장님들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매출 증대를 위한 고민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042)523-7741

엔보이비전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지난해 수출 30% 신장으로 선정 영예



지난달 28일 경남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주)엔보이비전(대표 안성호) 등 지역의 41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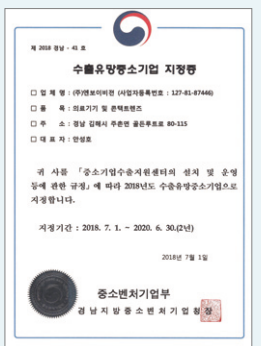
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엔보이비전은 향후 2020년 6월 30일까지 2년 동안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서 가산점을 받거나 금리, 환전수수료 우대,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 2017년 전년 대비 수출이 무려 30% 이상 신장하는 등 활발한 수출과 우수한 품질로 세계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엔보이비전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향후 수출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엔보이비전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은 앞으로 수출에서 더욱 큰 성과를 내라는 의미가 크다”며 “자사의 임직원이나 정부의 기대대로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콘택트렌즈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선정 기준은 연간 수출액이 500만 달러 미만이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문의 1544-5769



뜨거운 여름... '시슬리'로 즐겨라!



5007 50 21



5022 50 23 150



5013 49 21

(주)화경산업사대표 이재화의 대표 브랜드인 SISLEY가 최근 여름 시즌의 도수테 신제품 시리즈를 선보였다.

근래 아이웨어의 유행을 주도하는 메탈 프레임을 기본으로 외곽에 아세테이트 외피를 입힌 원저림 스타일이 주류인 이번 신모델은 림 디자인 역시 일반적인 라운드에서 벗어난 라운드 스케어 등 다양함을 과시하고 있다.

화경산업사 디자인팀의 관계자는 “더운 여름에 적절하도록 미니멀리즘의 얇은 아웃라인과 여러 스타일의 림 디자인으로 변화를 시도했다”며 “디자인적으로 적절한 밸런스에 신경을 써서 최적의 착용감을 보인 것도 이번 신상의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계속해서 그는 “자사는 여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신상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053)352-4584

어린이 근시... '마이오비전이 관리한다'

칼자이스, 신기술로 근시 억제하는 '마이오비전 프로·자이스 마이오키즈 프로' 런칭

칼자이스비전코리아(주)대표 최익준)가 지난 16일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안경 렌즈 '자이스 마이오비전 프로'와 '자이스 마이오키즈 프로'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자이스 마이오비전 프로와 자이스 마이오키즈 프로는 칼자이스만의 렌즈 디자인과 기술로 개발한 야심작이다.

세계 최초의 단초점 디자인으로 근시 진행 관리렌즈인 자이스 마이오비전 프로는 망막 주변부의 초점 흐림까지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자이스 마이오비전 디자인이 적용돼 근시 진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이 렌즈는 성장기 어린이의 눈과 안경을 착용한 자세 값을 렌즈 설계에 반영하면서 자이스 프리폼 기술로 구현되는 '자이스 에이 지핏 주니어 기술'이 접목된 첨단 렌즈이다. 이를 통해 기존 마이오비전 렌즈보다 원거리 상의 선명도가 더욱 향상되어 착용자의 만족도를 높인다. 또한 자이스 마이오키즈 프로는 조절 래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가



입도를 적용해 어린이 눈의 조절력을 강화시켜 근시를 관리해 주는 첨단 기능의 렌즈이다. 이와 함께 자이스 마이오키즈 프로는 다양한 가입도(1.00D~2.50D, 0.25D 단위)보다 정밀한 처방이 가능한 렌즈라고 소개한 칼자이스의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마이오 시리즈는 굴절률 1.50, 1.60, 1.67로 출시돼 더 많은 아이들이 자이스 근시관리 렌즈 솔루션의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야외 활동이 많은 어린이들을 위해 변색 옵션을 추가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맞춤 안경렌즈를 선물하고 싶은 부모님들을 위해 인디비주얼 렌즈로 주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의 02)2252-1001

선(線)과 감각... '뮤지크' & '스틸러'

'뮤지크·스틸러'로 시장서 안경문화 창조... 회사의 기업가치 500억 평가 받아

뮤지크 크리에이티브 레이블(대표 박인수)에서 전개하고 있는 MUZIK과 STEALER가 유니크한 디자인과 최상의 퀄리티, 다양한 아트웍과 프로젝트로 국내 아이웨어 시장에서 큰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뮤지크와 스틸러는 올해 국내 모 기관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인정받고, 투자 유치 성공과 동시에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서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뮤지크의 잠재력과 세계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자타가 인정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뮤지크와 스틸러는 런칭 이후 매년 150% 이상의 초고속 성장을 지속했고, 특히 지난해는 전년매출 대비 200%의 성장세를 달성하기도 했다.

뮤지크 크리에이티브 레이블의 한 관계자는 “아이웨어가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닌 새로운 문화코드로 자리 잡으면서 자사는 매 시즌마다 유니크한 제품 디자인과 독창



적인 프로젝트를 시도해 안경문화를 선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자사는 다가오는 가을 시즌에도 다양한 분야의 예상치 못할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일 계획이니 많은 기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문의 02)540-5578



어 느 곳 에 서 도
눈 의 보 호 는
정밀하게

SEIKO UVF

UV와 Blue light를 차단하여
눈을 보호하는 안경렌즈

- UV 100% 차단
- 420nm에서 Blue Light 약 80% 차단
- 누진렌즈 / 단초점 렌즈 가능

SEIKO

PRECISION FOR VISION

기본과 소통 강조한 '소효순표 방정식'...매출 '굉충'

기본에 충실한 혁신으로 매출 신기록 작성... 젊은 인재양성에도 아낌없이 지원
소비자 마케팅 집중하며 기능렌즈 판매 급성장...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도 분주

기업들 대부분은 혁신을 찾을 때 주로 회사 밖에서 찾는다. 이러한 경향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세계적인 대기업에 컨설팅을 해주는 혁신 전문가 데이비드 로버트슨 교수는 글로벌 기업 50여 회사를 분석한 결과 '기본에 충실'한 기업이 혁신에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다. 회사 안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고, 핵심제품을 개선해 충성고객을 공략하는 '상자 안의 혁신'으로 더 큰 효과를 봤다고 로버트슨 교수는 주장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에실로코리아는 수년전부터 '기본에 충실'해서 성공가도를 질주하고 있다. 회사의 우수한 제품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는, 즉 기존의 핵심제품을 새로운 각도에서 혁신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 핵심제품은 바리락스 X 시리즈와 트랜지션스(변색렌즈)이다. 에실로는 여기에 더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과감한 마케팅을 펼치는 집중력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물론 에실로의 이러한 성공 질주에는 두말할 필요 없이 2016년 4월부터 대표에 취임한 소효순 대표의 리더십이 그 중심에 있다.

- 국내 기업들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1997년 IMF 때보다 심하다는 요즘 에실로만 매출이 늘었다는 소문이다.

소효순 대표 : 듣기 좋은 소문이다(웃음). 감사하다.

- 시내에서 일반버스에 붙은 트랜지션스 광고를 심심치 않게 본다. 소비자 대상의 광고와 캠페인 효과가 큰 것 같다. 시장조사기관에서 집계한 안경렌즈 업체들의 수치도 고무적이다.

소효순 대표 : 부산의 한 안경원 선생님이 근래 부쩍 '변색렌즈' '색깔 변하는 렌즈' 혹은 '트랜지션스'를 찾는 고객이 늘어났다면 변색렌즈를 추천하기도 수월해졌고, 매출도 올려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말 감사한 말씀이다.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당연히 우리 에실로의 트랜지션스를 많이 판매하기 위해 소비자 광고를 집행한 것이지만, 크게 보면 국내 안경시장 전체를 활성화했다는 면에서 개인적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 에실로의 트랜지션스 광고가 전체 안경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소효순 대표 : 우리 에실로코리아는 2016년부터 '소비자로부터 안경원의 성장 기회를 찾자'는 영업 전략 아래 소비자에게 기능성 안경렌즈를 적극 홍보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소비자 홍보가 거듭될수록 직원들 스스로가 '안경렌즈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아이템'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 가품에 단비처럼 변색렌즈가 요즘 안경원에 큰 보탬을 주고 있다.

소효순 대표 : 국내 안경산업을 키우는 성장의 열쇠는 그 누구도 아닌 소비자가 갖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안경원 성장의 동반자로 소비자 광고와 이벤트에 집중해 안경시장 전체의 그릇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 대표에 취임한 후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소문이다.

소효순 대표 : (웃음). 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 다만 지금의 성과는 우리 에실로의 모든 임직원 모두가 하나로 뭉치고 노력한 덕분이다.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누진과 기능성렌즈에 집중한 것도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 한마디로 에실로는 어떤 회사인가.

소효순 대표 : 에실로는 안경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회사다. 안경사들이 듣기 좋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에실로의 기업문화는 안경사의 조력자 역할이다. 단순히 렌즈를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세계인이 시력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이 에실로의 진정한 DNA다. 세계 시력의 날에 대규모로 후원하고, 장애인올림픽에서 선수를 지원하는 것은 전 세계인의 시력 개선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에서다. 한국 에실로도 오래 전부터 전통 장인들의 후원사업, 전 세계 어린이의 구호활동 국제기구인 세이브 더칠드런에 대한 지원사업, 특히 안광학과 재학생을 위한 슈퍼 루키(ESSILOR SUPER ROOKIE, ESR) 프로젝트, 학생들의 전문화를 위한 누진렌즈 지원 등은 에실로의 주요 지원사업이다.

소 대표 "기능렌즈 시장은 무궁무진해"

- 에실로의 대표 아이템은 무엇인가.

소효순 대표 : 역시 누진렌즈를 최초로 개발



▲ 대표 취임 이후 매년 매출에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주)에실로코리아의 소효순 대표.

한 회사답게 프리미엄 누진렌즈 '바리락스 X 시리즈'가 최고 대표 제품이다. 바리락스 X 시리즈는 근거리 시야 부분을 세밀화한 '엑스텐드(Xtend) 테크놀로지' 광학기술로 근거리 시습관을 렌즈 설계에 반영한 개인 맞춤형 렌즈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인 2,742명의 시습관을 근거리 시습관(NVB) 측정 프로토콜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렌즈 설계에 반영해 개발된 렌즈여서 효과나 기능이 뛰어나다.

- 최근 안경렌즈 시장의 트렌드는 '기능성 렌즈'다. 기능성렌즈 선두회사로서 앞으로 출시할 아이템은 무엇인가.

소효순 대표 : 소비자들이 블루라이트(청색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최근 우리가 유튜브에 2가지 '블루루브이' 체험 영상을 올렸는데, 직장인 버전은 이미 15만뷰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소비자들 관심이 크다. 심지어 모바일 액세서리 업계와 화장품 업계까지 블루라이트 차단 제품을 연달아 출시할 정도다. 우리 에실로는 업계 최초로 블루라이트 제품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나온 블루루브이(니콘 BLUV)를 출시했다. 우리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도 대규모 '블루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 최근 국내 안경시장이 쉽지 않다. 안경사들의 희망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다.

소효순 대표 :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안경원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안경원이 등장하는 것

은 이러한 시장의 반작용 때문이다. 더욱 열려서라는 점은 미래의 안경사인 안광과 재학생들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안경사 직업에 꿈을 갖도록 선배 안경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앞으로는 부정적인 생각보다 우리가 가진 기회요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누진렌즈의 경우 경기가 어려운 작년도에 오히려 업계 전체적으로 두 자리 수 이상 성장했다. 우리나라는 누진렌즈의 착용율이 이제 겨우 11%에 불과해 시장의 발전 여력은 충분하다. 또 기능성렌즈의 성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안경사와 관련업체가 힘을 합쳐 노력하면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경영대 크리스티슨 교수는 수년전에 한국경제를 진단하며 '불황과 곁집 속에서 파괴적 혁신이 꽃을 피운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불경기 속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저가공세에는 기술 혁신뿐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도 혁신해야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 면에서 에실로코리아의 소효순 대표는 글로벌기업의 여성 CEO로서 회사의 대표 제품에 집중하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늘려가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꼼꼼히 찾아내 해마다 매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김보라 기자



▲ (주)에실로코리아가 소비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트랜지션스의 버스광고. 이는 안경렌즈 시장의 확대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 니콘 BLUV 영상 링크 :
<https://youtu.be/4fxLPGM2Uxo>

안경사 전문성이 숨은 1조 노안시장의 열쇠다!



안경사는 눈을 책임지는 전문가

안경사의 전문성만이 무궁무진한 숨은 1조 노안시장을 여는 핵심 동력입니다.
다비치만의 안경사 3대 전문성으로 잠재된 노안시장을 맑고 밝게 비추겠습니다.



〈안경사만의 전문성UP 다비치코드〉

1. 안경렌즈 및 콘택트렌즈 시장의 스펙트럼 확대
2. 국민 눈 건강 양안시운동
3. 다비치안경 사관학교 및 공채
4. 산학협력 통한 인재 양성





‘흐릿한 안경시장... 드라이브 렌즈가 길 밝힌다!’

야간 운전자에게 ‘가디언 야간운전용 드라이브 렌즈’ 특별 만족 제공... 전 국민 대상의 마케팅 펼쳐며 특약점 모집 중

Guardian



특약 안경원에 제공되는 가디언 렌즈 디스플레이 POP.



가디언 렌즈의 정품 보증카드.

가디언상사(대표 김경환)에서 오는 8월에 전격 출시하는 ‘야간운전용 드라이브 렌즈’가 차별화된 기능으로 벌써부터 안경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다음 달에 런칭하는 가디언 ‘야간운전용 드라이브 렌즈’는 맞은편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로부터 눈부심을 현격하게 낮춰줌으로써 야간 운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편사항을 완벽에 가깝게 개선한 렌즈다.

이뿐만 아니다. 기존의 가디언 렌즈의 기술력에 신 모노마가 결합되어 투명 드라이브 렌즈보다 높은 대비감도로 야간운전 시에 선명한 시야를 제공하는 가디언 ‘야간운전용 드라이브 렌즈’는 유해광선인 495nm에서도 뛰어난 청광(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으로 눈을 보호한다.

특히 대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홍보 마케팅을 펼치며 기능성 렌즈에 새바람을 일으킬 가디언 ‘야간운전용 드라이브 렌즈’는 굴절률도 다양하게 1.56, 1.60, 1.67로 출시되고, 정품 인증을 위한 렌즈 입김마크를 표시해 유사품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더구나 ‘드라이브 렌즈’는 제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구매고객에게 정품 보증카드를 제공하고, 특약 안경원에는 일반 착색렌즈와 차별화를 갖기 위해 ‘가디언 특약점’을 인증하는 스티커를 제공한다.

가디언상사의 한 관계자는 “계속되는 불경기와 가격 경쟁이 만연한 안경시장에서 소비자니즈를 충족하는 기능성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매출 향상의 제1의 필요조건”이라며 “안경원에 보다 확실하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가디언 야간운전용 드라이브 렌즈는 소비자가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활발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의 070-5099-5805



가디언 렌즈 특약점을 인증하는 안경원에 부착하는 표시물.



야간운전용 드라이브 렌즈는 다양한 기능과 효과로 인기를 모을 전망이다.

NEW 안전 운전의 시작 가디언 렌즈! Guardian

지난 36년간 가디언을 아끼고 사랑해주신 안경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 무분별한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많은 안경사&안경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가디언은 2018년 8월 업그레이드된 신제품 출시와 함께 과도한
 가격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안경사 및 안경원의 정당한 이익을
 찾을 수 있도록 가디언 취급 특약 안경원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가디언 특약점 외에 안경원은 2018년 8월 30일까지만
 주문이 가능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해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욱 좋은 품질의 제품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함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특약 안경원 신청문의

가디언 렌즈

서울 | 늘푸른광학 1544-8668
 영신광학 02-853-8427
 월드포커스 02-771-4282
 일도광학(강북일도) 02-975-2275
 일도옵티칼 02-448-7117

대전 | 천안대명 041-558-2202
충남 | 청주 한양광학 043-257-7536
충북 | 청주대명 043-264-7887
 한국렌즈 042-256-6256

경기 | (주)한샘엔컴퍼니 031-212-0372
강원 | 경기대명 031-391-5980
 경기일도 031-841-1416
 대명옵티스(강원대리점) 033-735-1520
 인천대명 032-438-6800
 일산대명 031-907-4265
 중부대명 031-283-1636

전남 | (주)광주케미렌즈 062-224-9339
전북 | 광주대명 062-653-8998
 전주 케미아이텍 063-251-6303
 전주한국 063-236-0208

경남 | 대구대명 053-354-7779
경북 | 동경옵티칼 051-894-3737
 동협상사 051-412-2765
 시원광학 051-758-2332
 울산동협 052-260-4593

제주 | 제주대리점 064-752-2648

가디언 안경/선글라스

서울 · 경기 공통

YK 옵티кс 사무실
 02-463-3314

경북 · 충북 | 김 성 찬 010-9163-9090
전남 · 전북 | 김 민 수 010-3602-6937
충청남도 | 김 진 학 010-6258-7707
세인점 | 김 승 현 010-4455-5229
경상남도 | 이 상 환 010-8638-6401

◦ 의료기기 상표등록 제 0118435호

Guardian

LENS

루티나+ 1.76 출시... 고도수인 '활짝'

토카이, 일본서도 고도 근시와 원시 소비자의 아이헬스케어 렌즈로 명성



토카이렌즈(주)(대표 장익희)가 최근 LUTINA+ 1.60AS, 1.67AS에 이어 LUTINA+ 1.76AS(단면비구면), 1.76Bi-AS(양면비구면) 시리즈를 출시했다.

산화 스트레스나 루테인의 기능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해광선을 420nm까지 차단하는 루티나+는 황반의 주요 구성성분인 루테인을 보호해 일본 의학계에서는 '루티나+ 렌즈를 사용하는 것은 눈 관련 건강보조제를 섭취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루티나+는 토카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ESC코팅(MSC코팅 기반으

로 자외선은 물론 지금까지 안경렌즈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근적외선(Infrared-Rays, 파장 760~1400nm)을 50% 정도 차단해 피부 주름과 피부 처짐을 방지해 눈 주위의 노화에 민감한 여성 소비자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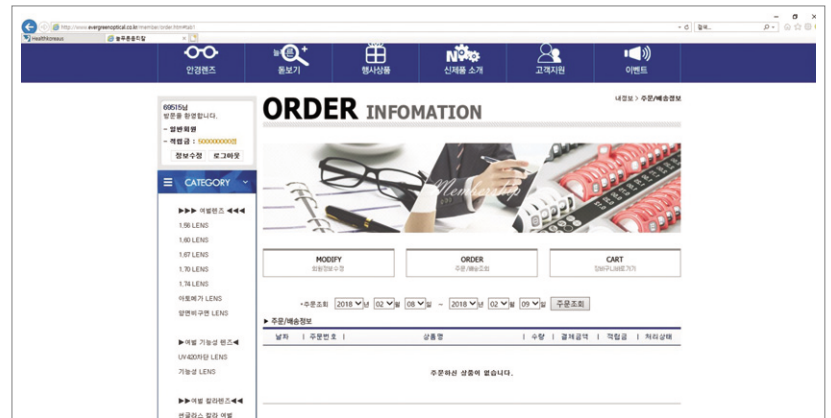
토카이 교육팀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루티나+는 1.60AS, 1.67AS 비구면에 이어 세계 최고 굴절률을 가진 1.76AS, 1.76Bi-AS(양면비구면)까지 제공되어 고도근시, 고도원시 소비자에게도 아이헬스케어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문의 02)337-8666

LENS

온라인서 렌즈 주문하면 '일사천리!'

늘푸른옵티칼, 사이트 개설 2년 만에 활성화... 전체 주문의 25% 순간 처리



(주)늘푸른옵티칼대표 강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주문 사이트(evergreen optical.co.kr)가 안경사들의 높은 참여로 활성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6년 첫 선을 보인 늘푸른옵티칼의 온라인 주문 사이트는 이듬해인 2017년에 전체 주문의 12%까지 성장했고, 올해 중반기인 현재는 주문량의 25% 이상의 안경사가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온라인 주문은 무엇보다 예전의 전화 주문에 비해 높은 편리성과 정확성을 갖

고 있다. 언제든 안경원이 편리한 시간에 주문할 수 있고 기다림 없는 주문이 가능해 '한 번도 사용 안 한 안경원은 있지 않지 몰라도, 한 번만 사용해 본 안경원은 없다'는 호평을 들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늘푸른옵티칼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주문은 유통의 효율성이 크게 높이는 것은 물론 작은 도수가입 등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안경원도 이전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문의 1544-8668

LENS

세이코 누진 선포도 '큰 폭 상승'

크로스 서피스 디자인 등 혁신기술... 누진시장의 새로운 판도 조성



혁신적인 설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세이코옵티칼(대표 추경의)의 Cross Surface Design이 적용된 Pursuit CV-X·AC-X에 대한 안경사의 선호도가 대폭 상승하고 있다.

크로스 서피스 디자인은 렌즈의 전면부에는 Smart surface control 기술을 적용해 외광과 흔들림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최대한 실제의 이미지와 같은 비율로 누진렌즈를 통해 보이는 이미지를 개선해 자연의 시야를 제공한다. 또한 퍼수트 CV-X·AC-X는 렌즈의 후면부에는 누진설계, 비구면설계, 구면도수와 난시도수를 배치하는 렌즈의 도수를 제어

하는 세이코 최고의 렌즈 설계로 소비자들이 하이엔드 누진렌즈의 진정한 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

세이코옵티칼 교육팀의 한 관계자는 "크로스 서피스 디자인이 적용된 퍼수트 CV-X와 AC-X는 안경원을 찾는 프리미엄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안경원의 매출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최첨단 누진렌즈 설계 기술로 업계 선도하는 세이코의 혁신적인 솔루션이 개인맞춤형 누진렌즈시장에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02)362-8226

LENS

모든 바리락스에 변색 옵션 적용

에실로, 최고 누진에 최고 변색 옵션 단행... 안경시장 활성화 기대

(주)에실로코리아(대표 소효순)가 지난 10일 누진다초점렌즈 'Varilux' 전 제품에 트랜지션스(변색렌즈) 옵션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누진렌즈의 주 소비층인 노년층 외에도 30~40대에서도 '젊은 노안'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변색 옵션을 확대한 것.

또한 이번 변색 옵션 확대는 자외선 차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하나의 안경으로 시야 교정과 자외선 차단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소비자가 크게 늘어나는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바리락스 트랜지션스'를 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바리락스 X, 바리락스 S, 바리락스 피지오, 바리락스 컴포트,



바리락스 리버티 등 바리락스를 사용하는 고객은 모든 시리즈에서 인덱스(굴절률)에 제약 없이 변색렌즈인 트랜지션스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회사의 관계자는 "기존에는 굴절률과 제품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트랜지션스 옵션이 이제는 모든 바리락스 시리즈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며 "자사는 이번 바리락스 전 제품에 트랜지션스 옵션 적용을 계기로 소비자층 확대와 안경원의 고부가가치를 창출을 이루는 시장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1600-8121

LENS

드라이브렌즈 • 맥시모2 출시

휴렌, 기능렌즈 완벽 구성 후 신제품 출시기념과 기존 제품 3개월간 특별행사

휴렌이 프리폼렌즈 등의 특별할인행사를 지난 7월 초부터 3개월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휴렌은 지난달 말 고품격 다초점렌즈의 자부심을 더욱 높이는 드라이브 렌즈와 맥시모2를 출시했는데, 1.60, 1.67의 굴절률의 휴렌의 드라이브렌즈는 다양한 굴절렌즈의 선택보다는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 첨단 렌즈이다. 세계 최고의 기술진의 협력을 통해 개발된 휴렌 드라이브렌즈는 한국인의 빠른 초점 이동 설계를 반영한 운전 전용 렌즈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소비자 테스트 만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타사의 드라이브 렌즈가 코팅기술로 눈부심, 빛 번짐의 차단율을 부분적으로 해결한 반면 휴렌의 드라이브 렌즈는 UV 420의 특수기술로 주야간의 해로운 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제품 맥시모2는 기본 인셋 25mm로 모든 굴절률의 9, 11, 13, 15mm의 4가지 누진대가 제공되며, 고가의 수입 브



랜드 못지않은 선명함과 원거리, 중간거리 및 근거리의 시야를 넓게 확보해주는 렌즈다. 특히 멀티 타입인 맥시모2는 기존 누진보다 쉽고 빠른 적응과 선명하고 넓은 시야를 확보한 양안 클리어 밸런스 기능과 시선 이동의 편안함 등 최근 스마트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개발한 품격 높은 누진렌즈이다.

휴렌의 관계자는 “자사는 이번 신제품과 기존 제품의 특별행사를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더욱 많은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제품에 따른 할인율 차등 등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02)752-4000

FRANCHISE

아이세이버, 최고 체인 만든다!

안경원 필수 프로그램 '아이키퍼·세이버가이드' 런칭... 최상의 서비스 제공

(주)아이세이버(대표 심재후)가 안경업계의 새바람을 일으킬 새로운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2년여의 제작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중순 런칭 예정인 'EyeKeeper'와 'SaverGuide'는 안경사 전문 솔루션 프로그램과 고객 맞춤형 가이드 프로그램으로, 이는 향후 안경원의 필수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먼저 아이키퍼는 '더 이상 고객에게 말로 설명하지 마세요'라는 단 한 마디로 설명 가능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와 안경원 경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정확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를 분석해 고객에게 꼭 맞는 맞춤형 상담이 가능한 원스톱 아이케어 서비스(One Stop Eyecare Service)가 곧 아이키퍼인 것이다.

또한 안경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안경계의 네이버'로 불리는 세이버가이드는 눈에 관한 모든 정보와 처방, 제품에 관한 정보 등을 모두 담고 있는 맞춤형 가이드 프로그램으로 세이버가이드 하나만 있으면 모든 안



경사를 아이케어 전문가로 탈바꿈시켜 주는 프로그램이다.

아이세이버의 한 관계자는 “자사는 다음 달에 국내 최초로 영국식 시스템을 도입해 단순히 시력교정을 위한 검안의 개념을 뛰어넘어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체 아이케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며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아이키퍼와 세이버가이드는 우리 체인 가맹점을 방하는 고객에게 최상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062)454-0500

FRANCHISE

CGV와 청소년 페스티벌 '출발~'

렌즈스토리, 청소년 대상 잇걸 뱀피 등 5종 할인쿠폰 증정 행사 개시

콘택트렌즈 전문점 렌즈스토리와 CGV가 지난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청소년 브랜드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 기간 동안 1만원대 병렌즈인 잇걸 뱀피, 잇걸 틴, 잇걸 걸리쉬, 잇걸 시크릿, 잇걸티아라 등 5종에 대해 1천원 할인쿠폰을 증정하고 있는 렌즈스토리의 해당 쿠폰은 만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CGV 홈페이지와 렌즈스토리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쿠폰을 발급 받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렌즈스토리는 CGV와의 제휴 프로모션을 기념하여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을 통해 이벤트를 소문내고 친구를 태그하면 추첨을 통해 5명에게 행사렌즈 5종 중 1쌍을 증정 받을 수 있다.

또한 렌즈스토리의 베스트 렌즈 중 하나로 청소년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잇걸 뱀피, 잇걸 틴 등은 렌즈스토리 매장을 방문한 후 발급된 쿠폰과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행사가격에 걸



러렌즈를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렌즈스토리의 관계자는 “청소년 브랜드 페스티벌은 여름방학과 바캉스 시즌을 맞아 뷰티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컬러렌즈를 구매하도록 기획된 행사”라며 “자사는 앞으로도 한층 더 풍성한 이벤트를 기획 전개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잇걸 뱀피는 화려한 그래픽과 컬러 발색으로 할로윈데이 등 파티 메이크업에 착용하기 좋고, 잇걸 틴은 작은 직경과 자연스러운 그래픽으로 데일리렌즈나 학생렌즈로 근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문의 1899-1541

OPTICAL INSTRUMENT

정책발표회서 대통령께 시연

휴비츠, 의료기기 규제혁신 발표회서 기기 설명... 문 대통령, 큰 관심 표명



▲ 지난 19일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 육성방안 정책발표회'에 마련된 (주)휴비츠의 부스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사진 좌측)이 새롭게 출시하는 OCT(광간섭 단층 촬영기)의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주)휴비츠(대표 김현수)가 지난 19일 경기 분당에 소재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행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 육성방안 정책발표회'에 참가해 우수 광학기기를 선보였다.

이날 휴비츠의 부스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내빈들에게 송경석 부장은 새롭게 출시한 OCT(광간섭 단층 촬영기)를 설명과 시연을 보였고, 이를 지켜본 문 대통령은 “외국기업에만 의존하던 OCT가 국산화됨으로써 저렴한 가격에 빠른 AS를 내세워 안과에 많이 판매되면 국민들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안질환을 찾아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해외 수출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연한 HOCT-1F는 휴비츠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OCT로써 빛 간섭을 통해 망막단층을 촬영하여 질환 유무를 진단하는 기기이고, 또한 안저카메라(fundus camera)까지 결합돼 황반부, 시신경유두, 망막 혈관 등의 이상 유무까지 파악할 수 있다.

문의 031)428-9013

GLASSES

스타가 아끼는 '프로젝트 프로덕트'

‘하정우 안경’으로 높은 인기… 아이돌 가수들도 속속 애용

아이웨어 대표 기업 (주)하정우아이티씨의 PROJEKT PRODUKT가 지난 6월 서울 광진구의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 서 진행된 영화 ‘신과 함께-인과연’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배우 하정우 씨에게 도수테를 협찬해 주목 받고 있다.

하정우 씨가 선택한 프로젝트 프로덕트의 컬렉션은 FN-24 CWGLD로써 디자인은 트렌디하면서도 빈티지한 무드의 투 브리지로 엔틱한 스타일링과 최적의 조화를 이루는 컬렉션이다.

미니멀리즘을 연상시키는 얇은 아웃라인이 돋보이는 하정우 씨의 컬렉션은 현재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정우 안경’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프로젝트 프로덕트의 한 관계자는 “빈티지한 스타일링에 포인트 아이템으로 제격인 FN-24 CWGLD는 레트로풍의 아이웨어로 소셜 미디어에서 높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하정우 씨를 통해 공개된 이후 주문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자사는 하정우 씨에 이어 가수 권정열 씨에게도 협찬했고 곧이어 컴백 예정인 다수의 아이



PROJEKT PRODUKT, FN-24 CWGLD

돌 그룹을 대상으로 협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02)6952-3006

OPTICAL INSTRUMENT

시력 정보… 고객이 먼저 확인한다

아이플린트, AR과 포뮬터와 자동 연동하는 필수장비 ‘유니데스크’ 런칭

(주)아이플린트(대표 안광석)에서 중소형 안경원에서 고객에게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검안실의 필수장비를 활용한 최첨단 유니데스크(UniDESK)를 선보였다.

대형 안경원보다 고객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많으면서 고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세밀한 검안이 이뤄지는 중소형 안경원에 적합한 유니데스크는 검안기기 테이블(유니테이블)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Full HD 사양의 스크린을 유니테이블에 장착한 장비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존 아이데스크에서 진행하던 콘텐츠를 유니데스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특히 한국식 검사법에 따른 예비검사 항목을 유니데스크를 통해 검사할 수 있고, 향후 업데이트하면 굴절검사에 대한 종류별 소개 및 양안시 검사 결과를 고객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첨단 기기이다.



회사의 관계자는 “간단한 예비검사 항목인 입체시 검사, 조절 용이성 검사 등을 유니데스크에서 진행하면 검사결과에 따라 조절 및 폭주 이상 유무 등을 고객에게 간단하게 확인시키고 이해도를 높여서 업세일링 판매에 큰 효과를 준다”며 “또한 유니데스크는 기존 포뮬터와 검안기와 연동이 가능해 보다 전문적인 연출과 손쉬운 핸들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의 031)8084-3737

나도코리아 | www.nadokorea.co.kr
스마트폰 홈페이지 m.nado.kr

김서림 방지 클리너 My deskmate(내 짝꿍) 출시!



- ▶ 등산, 낚시, 오토바이 운행 시 최적의 파트너/ 차가운 곳에서 더운 곳으로 가도 김서림 걱정 끝!
- ▶ 200회 가량 사용이 가능하며 성능이 5~6시간 지속됩니다. 단, 클리너를 절대 세척하시면 안됩니다.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함.
- ▶ 자가검사번호
F-A01B-C005001-A170



나도코리아 대구시 북구 노원로 48길 7 T 053-353-9992 F 053-351-4063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빛으로부터 루테인(황반)을 보호하는
아이헬스케어 렌즈

루테인(황반)
보호

블루라이트
차단

눈가주름
예방

근적외선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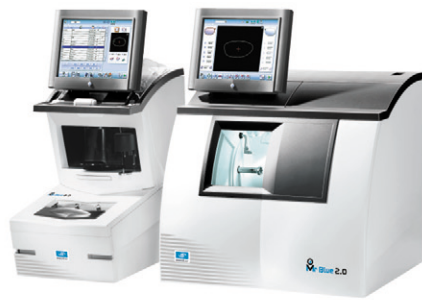
산화스트레스
차단

후면자외선
차단

TOKOI LENS CO.,LTD.



Mr Blue[®]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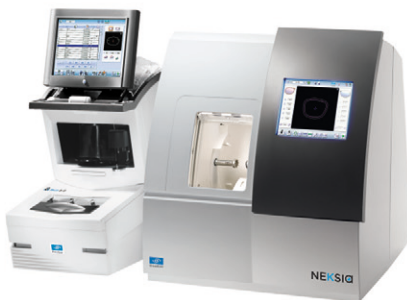
Mr Orange



NEKSIQ[™] AD



NEKSIQ[™] AS



NEKSIQ[™] OD



NEKSIQ[™] S



delta2[™] + TESS



WAM 700
WAVE ANALYZER MEDICA



OCT NX[™] 700



SPECULAR 550

